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76호 HYUNBULNEWS.COM 2026년 4월 29일(음력 3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서울시의회 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폐기하라"

조계종 종평위 · 중신회 등 서울시의회 앞서 기자회견
"정치 중립 · 공정성 위배"
임시회 동안 1인 시위 진행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가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불교단체들이 본회의 상정 예정인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조계종 포교사단,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등 불교계 주요 포교·신행단체들은 4월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이날 불교단체들은 박칠성 의원 등 17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2건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배한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하용수 포교사단 부단장은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청년들의 문화교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명백한 특정 종교 행사"라며 "서울시의회가 조례까지 제정해 이를 지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종교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이 종교 행사에 오용되면 안 된다"며 "국가의 종교 중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지원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혁 중앙신도회 팀장도 "4월 6일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이 발의된 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불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며 "서울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담은 공문도 전달했지만 여전히 조례안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혜정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포교간사는 조례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전 간사는 "조례안 제15조에 명시된 '시설 신축·개보수 비용 지원'은 시민의 혈세가 특정 종교단체의 자산 형성에 활용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며 "이는 재정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숙박·급식시설 확보, 자원봉사자 모집, 청년단체 활동 지원 등이 규정된 제6조부터 제17조를 들어 "사무 범위를 일탈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해당 종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내부 사무를 지자체의 사무로 명문화해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공권력의 과잉 행사이자 행정의 적정성 원칙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라고 말했다.

또 "이 조례안은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고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크다"며 "타 종교와의 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향후 유사한 지원 요구가 빗발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끝으로 조규태 국제포교사회장이 대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는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장과 교육감에게 종교행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강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찾는 세계 각국의 청년들의 안전을 위한 지원은 타당하지만, 국가정책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 오전 9시 30분부터 30분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 등은 4월 21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찾아 조례안의 문제점과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남북 평화' 발원 봉축탑 불 밝히다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남북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북한의 묘향산 '보현사 탑등'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환하게 밝혔다. 연등회가 국가무형유산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래 북한의 문화유산을 봉축등으로 선정 · 제작한 건 처음이다. 사진은 4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봉축점등식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불 · 법 · 승 구호에 맞춰 점등 버튼을 누르는 모습. 글=김내영 기자 · 사진 제공=조계종

조계종 원로의원에 도법·영담·정완 대종사

원로회의, 4월 22일 회의서…진우 스님 "원로 말씀 경청"

조계종 새 원로의원에 취성 도법 대종사와 영담 덕운 대종사, 지봉 정완 대종사가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자광 스님)는 4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81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제237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추천된 도법·영담·정완 대종사를 신임 원로의원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의장 자광 대종사는 개회사에서 "원로의원으로 새롭게 모시게 될 세 명의 스님은 종단의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은 분들"이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회향될 수 있도록 대종사 스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80차 회의에서 원로의원으로 선출돼 첫 회의에 참석한 원산 도명 대종사는 의원선서를 통해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원로회의 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서원했다.



도법 대종사 영담 대종사 정완 대종사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원로 스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종도와 국민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번 회의에서는 종단 안팎으로 존경받는 용주사 정완 스님, 쌍계사 영담 스님, 금산사 도법 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선출하는 인연을 맺고자 한다"며 "평생을 상구보리 하화중생 정신으로 정진해 온 어른 스님들께서 원로회의 일원으로 참여해 종도의 앞길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주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봉축 앞두고 정관계 "국민 화합" 발원

불교도 봉축대법회 봉행…국무총리 등 참석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한국불교 주요 종단 지도자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운융창과 국민화합을 발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가 주최하고 불교리더스포럼(상임대표 이기흥)이 주관한 '불기 2570년 대한민국 불교도 봉축대법회'가 4월 20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회 의장 자광 대종사,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종단협 수석부회장인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등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을 비롯해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전국 재가불자 등 700여 명이 함께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이헌승 국회정각회장, 전성환 대통령실 수석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국민 화합과 상생을 기원했다. 3면에 계속

임은호 기자

재적사찰 연등달기 캠페인

봉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 축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한
희망의 연등을 밝힙시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연등 하나를 밝히며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연등 공양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등불이자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의 한 모습입니다.
서원과 기도를 담아 밝힌 연등공양의 공덕이 법계에 두루 퍼져 마음에는 평안이
세상에는 화합의 기운이 두루 퍼지기를 발원합니다.